

바둑과 장애인

- 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Baduk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welfare center

Baduk program -

김동한·김진환*

Kim Donghan & Kim Jinhwan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Baduk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by providing its basic data. For the current study, a total of 258 welfare centers in Korea were examined from April to November in 2022. Among them, fourteen welfare centers providing Baduk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hosen for the further analysis. For the present study,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adopted. To be more specific,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Baduk education programs are provided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re were a total of 71 participants. They were 13 program managers and 58 program participants from welfare center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rogram managers while the surveys were done with the program participants. For the data analysis,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via content analysis. Regarding the survey results,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258 welfare

* bookdoo5@mju.ac.kr

centers nationwide in Korea, 21 centers were providing Baduk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ptember 2022. Furthermore, four centers among them were providing Arum Baduk program that was designed for people with a developmental disorder. Second, from the survey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gender ratio imbalance in Baduk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st program participants were men (94.8%), and even in some welfare centers, there were only male participants joining the Baduk program. Third, in the interview, program manager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ack of publicity. The managers said that Baduk should be able to approach young children familiarly.

This study reports and reviews the status of Baduk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by provi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The current study will help improve Baduk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ey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 Baduk Program, Happiness, Welfare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은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완전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몸이 불편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능력을 개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동참한다.

1998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장애인 인권 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13가지의 세부 항목에서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항), “장애인은 자신의 유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5항),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7항) 등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문화생활이나 교육 등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정·공포되어 있다(장애인권리헌장, 1998).

바둑은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여가에 참여할수록 행복감은 높아지며 여가활동에 몰입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가 있다(박세혁, 2016). 장애인에게 바둑이 유용한 여가수단이 되는 이유는 바둑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며,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인터넷 바둑이 발달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바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 바둑애호가 가장 바둑을 즐기는 장소가 인터넷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바로미·김미라, 2009). 이는 특히 장애 유형 중 가장 큰 비율(45.8%)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커다란 혜택이 된다(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실태조사』, 2021).

정수현과 김바로미(2007)는 <장애인의 삶에서 바둑이 갖는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바둑은 흥미진진한 여가 수단이며, 정신 수양과 인생의 교훈을 주고, 바둑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장애인들은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형성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 바둑애호가 느끼는 큰 매력이라고 한다. 또한, 일부 장애인 바둑애호가에게는 바둑이 본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동반자라는 의식까지 가지고 있다(정수현·김바로미, 2007). 김바로미와 김미라(2009)는 <장애인 바둑애호가의 여가 및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장애인 바둑애호가의 바둑 활동 참여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바둑 활동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도 대체적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바둑애호가 바둑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얻는 것은 선행연

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들이 여가시간에 바둑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라는 것이 밝혀지며 바둑은 장애인들에게 훌륭한 여가가 되었다(김바로미·김미라, 2009).

장애인에게 바둑이 훌륭한 여가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장애인 바둑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바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 바둑교육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둑교육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장애인의 바둑 교육실태는 어떠한가?
- 2)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장애인 바둑애호가에게 바둑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종합하면, 이 연구는 장애인 바둑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바둑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용자다. 프로그램 담당자 13명에게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이용자 58명에게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258개소 장애인복지관의 바둑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는 전화 문의와 이메일로 확인하였으며, 복지관 이용자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심층 면접은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찮

은 경우 전화 면접과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표1> 바둑 프로그램 진행 복지관과 연구 참여 대상

	복지관명	복지관 위치	장애별 유형	인터 뷰	설문 조사	비고
1	강남세움복지관	서울	종합	○		아름바둑
2	서울시립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종합			
3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	뇌성 마비			
4	성북장애인복지관	서울	시각			
5	정립회관	서울	지체			
6	홀트강동복지관	서울	발달	○		아름바둑
7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종합			아름바둑
8	강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종합	○		
9	광주광역시서구 장애인복지관	광주	종합		○(9)	
10	광주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관	광주	종합	○	○(7)	
1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	종합	○	○(9)	
12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	종합	○		△ 2022년 상반기
13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관	울산	종합		○(8)	
14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	종합	○	○(9)	
15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	종합	○	○(5)	
16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	종합			
17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	종합	○		아름바둑
18	양평군장애인복지관	경기	종합			△ 2022년 상반기
19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경기	종합	○	○(3)	
20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종합	○	○(1)	
21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남	종합			장기/오목 위주
22	영주시장애인복지관	경북	종합	○	○(7)	
23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	청각			
24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충남	종합	○		△ 2021년

※ △는 최근 2년 이내에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모두 채택하였다. 장애인 바둑애호가에게 바둑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에게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 분석을 통해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였고, 설문지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4월~11월까지 이루어졌다.

1차 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바둑 프로그램 유무 조사는 4월~5월 진행되었고, 9월~11월은 이용자 설문조사와 프로그램 담당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심층 면접은 문서화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1차 적으로 문헌 연구와 2022년 4월, 5월 진행된 복지관 내 바둑 프로그램 여부 조사에서 복지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받아 반구조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들에게 사용했던 반구조화 질문지는 <표2>와 같다.

<표2>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 반구조화 질문지

구분	하위문항
바둑 프로그램 현황과 실태에 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몇 명인가? - 이용자의 성비는 어떠한가? - 이용자의 연령은 어떠한가? - 바둑용품은 구비되어 있는가? 어떤 용품이 있는가? - 바둑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얼마인가?
이용자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강사를 구하기는 어떤가? - 이용자가 느끼는 바둑 교재의 내용이나 재미는 어떠한가? - 바둑용품을 구비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 - 바둑의 이점(좋은 점) 등의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시설 이용자의 바둑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이 새로 입문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개개인의 수준이 다르기에 단체수업의 어려움) - 기초~고급 단계까지의 커리큘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용자의 증감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주변 반응 (부모 혹은 자녀의 반응)은 어떠한가? -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사의 교수법 혹은 강의자료 (영상 등)는 충분한가? - 이용자가 스스로 바둑을 통해 무엇인가 좋아진다,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전해 들은 적이 있나?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면 어떠한 점이 바뀌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시설 내에 인기 프로그램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바둑 단체에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대한장애인바둑협회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의 설문조사에서는 김바로미와 김미라(2009)의 선행연구인 <장애인 바둑 팬의 여가 및 삶의 만족도 조사>와 이경륜(2007)의 <전북지역 바둑 수련생의 바둑교실 만족도 조사연구>, 김진환(2008)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바둑교육 만족도 분석>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세부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 설문지 (영역별)

영역	내용	문항수
일반유형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 발생 시기, 장애 원인, 장애등급, 최종학력,	7문항
2. 바둑 여가 형태	바둑활동(9문항) 장애인바둑대회(1문항)	10문항
3. 바둑 여가 참여	TV시청, 용품 구입, 사교(2문항), 건강(2문항), 기본전환, 여가만족(2문항)	9문항
4. 복지관 바둑 수업 환경	규모, 청결, 안전, 용품 상태	4문항
5. 바둑강사	외모와 복장, 교육 방법, 수업자료, 강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5문항
6. 바둑 수업	수강 시간, 교육 횟수, 교육 수준	3문항
7. 복지관 위치	위치, 교통편	2문항
8. 바둑 수업 효과	기력 향상, 친구 사귀, 긍정적 변화, 스트레스 해소	4문항

9. 장애 유형별 배려	자리배치, 시각장애인 용품과 도우미, 지체장애인 이동시설, 청각장애인 수화와 학습 도우미, 지적장애인 학습 도우미	7문항
합계		51문항

Ⅲ.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실태

1.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실태

2022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차 조사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258개소에 공문을 보내고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한 결과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총 23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이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개소, 광주 2개소, 울산 2개소, 강원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제주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 설문지와 바둑 담당자의 인터뷰를 위한 2차 조사를 할 때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 총 2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중 강남 세움복지관, 홀트강동복지관,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름바둑’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립회관의 경우 동호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원이 5~60명에 이르며 인원이 적은 곳은 4명 등 평균 10명 정도의 이용자가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 설문조사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58부를 회신 받았으며, 빈도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4>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항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자	55	94.8	94.8
	여자	3	5.2	100
	합계	58	100	
연령	30대	3	5.2	5.2
	40대	4	6.9	12.1
	50대	13	22.4	34.5
	60대	23	39.7	74.1
	70이상	15	25.9	100
	합계	58	100	
최종학력	중학 이하	15	25.9	25.9
	고등학교	33	56.9	82.8
	대학 이상	10	17.2	100
	합계	58	100	

응답자 성별에 대한 빈도는 남자 55명(94.8%), 여자 3명(5.2%)이었으며, 연령대는 60대가 23명(39.7%), 70세 이상이 15명(25.9%), 50대가 13명(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60대이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3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표5>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장애 특성 설문

항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장애 유형	지체	26	45.6	45.6
	청각	1	1.8	47.4
	뇌병변	23	40.4	87.7
	시각			
	지적	4	7.0	94.7
	기타	3	5.3	100
	합계	57	100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26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23명(40.4%) 순으로 이어졌다. 시각장애가 없는 것은 바둑용품과도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바둑을 둘 때는 시각장애인 전용 바둑판과 바둑알이 필요하며, 대국뿐 아니라 강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바둑을 지도하는 보편적인 방법인 자석 바둑판을 이용한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표6>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형태 설문 조사

항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주로 대국하는 곳	집	2	3.6	3.6
	인터넷	6	10.7	14.3
	바둑			
	사이트			
	기원	2	3.6	17.9
	바둑			
	대회			
	복지관	44	78.6	96.4
기타	2	3.6	100	
	합계	56	100	

이용자가 주로 대국을 하는 곳은 ‘복지관’이라는 답변이 44명(78.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김바로미와 김미라(2009)의 선행연구와 결과가 조금 다르다. 다만, 이들의 연구(김바로미·김미라, 2009)에서는 미추홀배 장애인 바둑대회에 참가한 장애인 애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장애인 애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차이가 있다.

<표7>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바둑 강사 설문조사

항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바둑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족	51	91.1	91.1
	보통	5	8.9	100
	불만족			
	합계	56	100	

바둑 강사에 대한 부분은 모든 질문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바둑 강사의 외모와 복장(92.9%), 교육 방법(94.5%), 수업자료(91.1%), 바둑 강사의 강의(91.2%), 장애인에 대한 이해(91.1%) 등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용자들은 바둑 강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갔던 모든 복지관에서 바둑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바둑 강사 중 본인도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표8>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형태 설문조사

항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여가활동으로 바둑을 하는 이유	인간관계 형성	28	49.1	49.1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정적인 게임	6	10.5	59.6
	스트레스 해소	3	5.3	64.9
	스릴 있고 흥미진진한 게임 요소	4	7.0	71.9
	비장애인과의 대등한 경기 운영	2	3.5	75.4
	건강을 위해	3	5.3	80.7

	정서 안정에 도움	8	14.0	94.7
	기타	3	5.3	100
	합계	57	100	

여가 활동으로 바둑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인간관계 형성’이 28명(4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정서 안정에 도움’이 8명(14.0%),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정적인 게임’이 6명(10.5%)으로 나타났다. 바둑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김바로미(2009)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복지관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바둑 프로그램은 바둑 실력을 키워줄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여가로서의 기능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셔서 바둑을 안 두는 분도 계시다. 오목 정도만 두시는 분도 계시다. 그분은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것. 부모나 그 주변인들은 그냥 이용자가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 그걸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둑은 못 두지만,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

<가장 좋은 것은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대인관계를 쌓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이 크다. 여가로서의 기능.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

<복지관 오셔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가생활이면서 만남의 장소 이니까. 그리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다른 수업은 안하셔요. 다른 프로그램 안하셔. 오직 바둑만>

- 광주동구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

<표9>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조사

복지관 명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점	비고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홍보	근로. 바둑이 근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바둑을 즐길 수 있도록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인지도 떨어짐 이용자들이 핸드폰, 컴퓨터 등에 관심이 많으심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느냐 전국적으로 바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짧은 시간에 이용자들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움.	장애인 체육대회에 들어가면 지원이 있을 것.	이용자들의 수준 차이가 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홍보가 잘 안되는 느낌. 세대 격차를 줄여주는 게임인데 아쉬움.	강사. 지금의 강사가 못하더라도 채워질 수 있어야 하지만 어려움.	복지관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 강사의 힘.
울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연령이 높음. 바둑계가 풀어야 할 숙제.	네트워킹. 복지관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바둑을 할 수 있어야 함. 대회, 행사, 강의 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바둑의 장점일 수 있음.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	수업 4시간.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홍보. 전국체전 등 흥미유발. 어린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원주 장애인복지관	바둑에 대한 장점의 홍보가 많지 않음.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 테블릿 소유권.	테블릿 이용.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바둑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한 번 해볼까? 생각이 들게끔 홍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대회 홍보 등.	

3.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 면담 조사

<표9>는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것을 간단한 표로 나타낸 것이다. 복지관의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바둑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고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장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 하면 홍보를 꼽았다. 이유는 아동에게는 집중력, 사고력 등의 홍보를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데 성인 장애인에게는 홍보하여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것에 마땅히 홍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바둑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 근로, 즉 바둑이 여기뿐 아니라 일자리로도 갈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물론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소소한 일거리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바둑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배울 때도 배움으로써 나중에 근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근로라는 것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텝이나, 옆에서 도와줄 수 있거나? 기념품 배부? 등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 좋을 듯>

-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

- 울산장애인복지관

울산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바둑 프로그램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연령이 높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나이대가 20~30대가 많은데 바둑은 50~60대가 많다, 그리고 성비는 15명의 정원 중 여성이 1명이다. 다른 나이대의 이용자도 바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둑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2-30대 분들 많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바둑 프로그램은 5-60대 남성분들. 지금은 이 나이대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이 접근성을 갖고 하기가 어렵다. 바둑계가 풀어야 할 숙제. ... (중략) 하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낫설고, 어려워진다.. ... (중략) 홍보에 중점을 둔다면 젊은 세대 MZ세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복지관 이용자가 성인 장애인 이다보니 현재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 울산장애인복지관 -

단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였다. 이용자들이 복지관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바둑 단체와 네트워크도 생성되어 복지관 안에서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바둑을 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대회, 행사, 강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복지관의 이용자들이 더 많고 넓은 장소에서 바둑을 즐기기를 바랐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했다. 바둑은 하모니카나 텃밭 가꾸기 같이 복지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만 잘 형성되면 지역을 벗어나 전국 또는 외국의 누구와도 즐길 수 있다. 이는 바둑의 큰 장점이므로 다양한 성비, 연령, 장애 유형 등이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네트워킹.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도 바둑 전문 단체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복지관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바둑을 둘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외부 바둑 관련 기관과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회라던가 행사라던가 강의라던가 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바둑에 관심을 가지신 장애인분들께서 복지관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떠나서, 본인이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울산 내에서는 그런 네트워킹이 복지관에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에게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 복지관도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복지관의 역할인데. 연결고리으로써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과 또 장들 환경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이분들께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잘 지내실 수 있지않을까.. 바둑은 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중략) 하모니카 / 텃밭 등 여성도 함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바둑은 주로 남성만이 하니까 또 신규 이용자가 매년 들어오기는 하지만 기존 이용자가 머물러있는 프로그램 이다보니 바둑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은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보니 신규 이용자가 들어오면 기존 이용자가 나가야 하거나 하는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비,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 울산장애인복지관 -

-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바둑 프로그램에 문제점보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용자들의 바둑 프로그램 욕구도 있고, 바둑 프로그램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바둑을 하면 이것이 좋아진다 등의 홍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부분이 홍보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만족도는 너무 좋은편. 재미있으니까. 가볍고. 대여요청도 많지만, 안되고 사업이 끝나면 수거해가시니까. 아쉽죠..…(중략) 테블릿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의 실력대로 하는 거니까 재미있게 하신다. 우선 프로그램을 하실 때 각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다 보니까 친밀감도 쌓이고. 바둑을 하면 이게 좋아져요! 의 홍보가 많지는 않은 듯>

-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

원주복지관은 타 복지관과 다르게 대한바둑협회의 지원을 받아 테블릿으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덕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너무 좋은 편이다. 아쉬운 점은 대한바둑협회의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도 선정이 되지 못하면 테블릿을 수거해가고 그러면 이용자들의 흥미도 반감되어 아쉽다.

<프로그램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한 3년 단위로? 왜냐면 실력이 금방 늘지 않으니까.. 단타는 하다가 끊기기도 하니까. 테블릿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으면. 사업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이용자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사업이 종료되

면 건어가니까. 다시 출발해야 하고, 그렇다고 복지관에서 테블릿을 구비할 순 없고>

-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바둑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10>과 같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홍보였으며, 네트워크의 부재, 전문 강사 필요, 흥미 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표10>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홍보 부족	1. 바둑 시합과 아시안게임 등 단체, 협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 필요
	2. 아이, 젊은 층과 장애 유형별 바둑용품 개발 및 홍보
네트워크 부족	1. 대한장애인바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2. 장애인 바둑대회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통보
교육 전문가 부재	1. 대한장애인바둑협회에서 장애가 있는 바둑애호가에 대한 교육 필요
	2. 장애가 있는 바둑애호가가 강사가 되면 더욱 효과
흥미 유발 필요	1. 성취감을 위한 단급증 발급
	2.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홍보 부족은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가 모두 말하는 부분이다. 홍보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또한 바둑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둑이 재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름바둑도 모르는 복지관이 많은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19줄 바둑이 아닌 아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화려하고 승부를 일찍 결정지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바둑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부재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서 바둑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결과도 복지관 다음으로 바둑을 많이 두는 곳이 인터넷 바둑사이트였다. 이는 복지관과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전국적인 규모의 이벤트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지역이라면 직접 만나서 대국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멀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만 잘 형성되어있다면 누구와도 대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한장애인바둑협회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넷 바둑이 익숙하다면 전국규모의 장애인복지관 바둑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다면 지역이나 전국규모의 장애인 바둑대회가 열릴 때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큰 의욕을 불러올 수 있다.

교육 전문가 부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도 전문 교육을 받은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나아가 장애 유형별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현재 바둑강사 개인의 유능함으로 바둑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강사가 부재 시 바둑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능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강사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 바둑애호가를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이는 가장 중요한 근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

흥미 유발을 위해서는 단급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단,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단급증은 본인이 발전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단급 증을 획득함으로써 성취감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자신감도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급증이 아니더라도 기력 향상을 빠른 시간에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이용자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될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 진행된 장애인복지관의 바둑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곳은 258개소 중 21개소이다. 그중 4개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아름바둑’이 진행되고 있다. 아름바둑은 바둑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바둑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비는 남성 94.8%로 남성 이용자가 매우 많았다. 남성 이용자만 있는 복지관도 있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문의를 하지만 남성 이용자가 이미 많은 경우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의 바둑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조사했을 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은 장애인에게는 이미 바둑을 둘 줄 아는 이용자도 있기에 접근성이 좋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바둑이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장애인 바둑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장애인 바둑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부담 없이, 다양한 세대와 더 많은 장애 유형의 이용자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둑 실력뿐 아니라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나아가 장애 유형별로 더욱 세밀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도 바둑 종목이 있다. 남자 싱글, 남자 단체, 여자 싱글, 여자 단체 등 4개의 종목이 펼쳐진다. 장애인바둑계뿐 아니라 바둑계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258곳을 전수조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조사 기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곳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258곳의 복지관 중 현재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곳 외에 40여 곳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현재보다 많은 복지관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려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바둑 강사와 아시안게임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장애인복지관을 전수조사 하여 바둑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지만, 회수된 자료가 충분치 못하였다. 또한, 현재 바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모두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장애 유형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바로미·김미라(2009). 장애인 바둑팬의 여가 및 삶의 만족도 조사, 바둑학연구, 6(1), 21-35.
- 김진환. (2008).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바둑교육 만족도 분석, 바둑학연구 5(2), 15-27.
- 박세혁(2016). 바둑 애호가들의 여가동기가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 국사회체육학회, 64, 435-442.
- 보건복지부(2021). 「2020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21). 「장애인인권현장」.
- 이경륜. (2007). 전북지역 바둑 수련생의 바둑교실 만족도 조사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수현·김바로미(2007). 장애인의 삶에서 바둑이 갖는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바둑학연구, 4(2), 19-38.